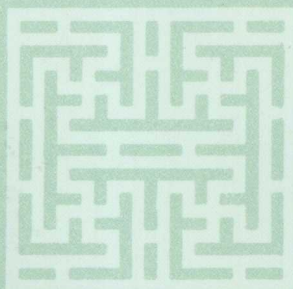




朴齊家の 시문학과  
중국 문학 관련 연구

김 철



민족출판사

朴齊家の 시문학과 중국 문학 관련 연구

김 철

민족출판사

图书在版编目(CIP)数据

朴齐家诗文学与中国文学研究:朝鲜文 / 金哲著. —北京:  
民族出版社, 2007. 8

ISBN 978-7-105-08475-3

I. 朴… II. 金… III. 朴齐家(1750~1805)-诗歌-文学研究  
-朝鲜语(中国少数民族语言) IV. I312.007.2

中国版本图书馆CIP数据核字 (2007) 第133118号

民族出版社出版发行

(北京市和平里北街14号 邮编 100013)

<http://www.mzcbs.com>

迪鑫印刷厂印刷 各地新华书店经销

2007年8月第1版 2007年8月北京第1次印刷

开本: 787毫米×1092毫米 1/16 印张: 19.625

字数: 289千字 定价: 28.00元

ISBN 978-7-105-08475-3 / I · 1856(朝196)

---

(朝文室电话: 58130534; 发行部电话: 64211734)

• 민족출판사 출판발행

(북경시 화평리북가 14호 우편번호 100013)

<http://www.mzcbs.com>

2007년 8월 제1판 2007년 8월 북경 제1차 인쇄

절지: 787mm×1092mm 1/16 전지: 19.625

자수: 289천자 값: 28.00원

ISBN 978-7-105-08475-3 / I·1856(朝196)

---

(편집실전화: 58130534; 발행부전화: 64211734)

## 서 문

18세기 후기 조선조 문단에서 북학과 문인들이 거둔 성과는 자못 크다. 그중에서도 초정 박제가가 이루어 낸 문학적 성과가 더욱 돋보인다. 초정의 문학은 북학과 문학에서 뿐만 아니라 전반 18세기 조선조 후기 한문학에서도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다. 시대를 앞서 가는 개방적 의식의 소유자였던 초정은 문학적 재능이 뛰어났고 당시 중국 문화와 문학에 각별히 심취되어 있어 그의 문학관과 시문학은 많은 면에서 중국 문학과 깊은 관련이 있었다.

고대의 중조 문학 교류는 쌍향적인 교류였고 이러한 특징은 조선조 후기 북학과 문학에서 가장 두드러지게 보여지고 있다. 쌍향 교류라고 하면 일방적인 수용이 아닌 명확한 주체 의식을 가지고 수용과 전파를 추진했음을 의미한다. 초정은 바로 그 시대 ‘존명양이(尊明攘夷)’의 분위기가 팽배해 있던 상황에서도 드팀없이 명확한 민족문화 의식과 근대적인 문명 개방 의식으로 청대 문인들과 활발한 교류와 교류를 벌였다. 이러한 교류를 통하여 초정은 중국과 서구의 선진적인 문화를 적극적으로 수용하여 조선에 전파하는 동시에 조선의 문학을 중국 등 여러 나라에 적극 소개하고 전파하여 조선의 대외적인 문학 교류를 새로운 차원으로 끌어올리는 데 마멸할 수 없는 기여를 하였다. 그러므로 초정의 문학은 조선조 시대의 중조 문학 교류를 이해함에 있어서 뿐만 아니라 오늘에 있어서 중조 문학 교류 나아가 동아시아 문화 교류를 추진하고 새로운 동아시아 문화를 창출함에 자못 의의가 크다 하겠다.

상기한 초정의 문학사적 위치로 하여 그의 문학에 대한 연구 역시 조선 고전문학 연구에서 중요한 연구 테마로 되어 현재까지 수십 편의 석, 박사학위논문을 비롯한 수많은 연구 논문들이 나왔다. 그중에서 김철 박사의 『박제가의 시문학과 중국 문학 관련 연구』가 참신한 가치를 가지고 있는 원인은 바로 이 논문은 초정 문학의 사상적 기반, 문학관 그리고 그의 시문학과 중국 문학 간의 관련에 대해 전면으로 다루고 있다는 점 때문이다.

김철 박사는 논문에서 초정의 사상적 인식의 바탕으로 되어 있는 중국관을 새롭게 규명하고자 다각적인 시도를 했으며 나름대로의 견해도 내놓았다. 초정의 개방적인 문화 의식과 수용관, 분명한 주체 의식, 탈주자학적인 태도, 객관적인 현실 인식을 기반으로 하고 있음을 지적했는데, 이는 우리가 그의 문학을 깊이 있게 이해하는 데 중요한 시각을 제시 해주었다고 볼 수 있다.

동시에 ‘유교문화권’ 혹은 ‘한문화권’에 속해 있는 고대 조선의 문학이 중국 문학으로부터 받은 영향은 다차원적이고 다원적이다. 초정은 중국 문학에 대해 어떤 태도로 수용했으며 또 어떻게 자기 창작 실천에 접목시켰는가 하는 것이 논의의 핵심이다. 이 논문의 또다른 초점이 바로 여기에 있다. 김철 박사는 논문에서 초정의 시학 사상 및 시학론의 형성과 중국 문론 관련, 그의 시문학의 특징과 청대문학을 포함한 중국 문학에 대한 창조적인 수용, 변용 및 청대 여러 가지 문학사조와 학풍에 대한 수용 등을 자세히 고찰하였으며 그 특징들을 일일이 밝혀내는데 모를 박았다. 즉 초정에게 준 중국 문학의 영향이 어떠하였는가보다 어떻게 영향을 받았는가 하는 것을 밝혀내는데 더 많은 공을 들였다는 것이다. 이런 논의는 문학 수용의 본질과 특징을 밝히는 데 학문적 가치를 가진다.

물론 논문은 여러가지 방법론의 유기적인 결합이 부족한 등 일부 허점도 보이고 있으며 중국 측의 자료들을 충분히 활용하지 못한 아쉬움도 남아있다. 하지만 이러한 부족점들은 금후 시간과 공력을 들여 보완한다면 충분히 미봉할 수 있다. 초정 박제가 문학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는 오

랜 역사와 전통을 가진 중조 문화 교류를 새로운 차원으로 끌어올리는데  
유익한 계시를 줄 것이다. 김철 박사와 같은 젊은 학자들이 더욱 분발하  
여 계속 훌륭한 성과들을 이룩해야만 할 것이다.

일찍 석사과정에서부터 초정의 문학을 자기의 중요한 연구 과제로 꾸  
준하게 다루어 왔던 김철 박사는 국내 연구 자료의 결핍과 여러 가지 여  
건의 한계로 많은 어려움을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수년간의 인내와 노력  
으로 이 성과를 이루어 냈다. 석사 과정에서부터 현재까지 사제의 인연  
을 맺어 지켜보아온 결론이라면 김철 박사는 바르고 여진 성품의 소유자  
인 동시에 상당히 노력하는 학도라는 것이다. 어렵고 딱딱한 고전문학을  
선택하여 원전 해독부터 방법론 공부까지 차근차근 그리고 꾸준하게 해  
온 김철 박사의 학도적 근성은 무엇보다도 높이 사 줄 만하다.

박사과정을 위해 일 년에 몇천 리 길을 두 번씩이나 오가면서 겪은 어  
려움과 대학의 행정직을 맡아보면서 학술 연구도 병행하다 보니 오늘의  
성과를 이룩하는 데 가배의 노력이 필요했을 것이다. 학문의 길이란 비  
록 외롭고 고민스러운 삶의 오솔길 같기도 하지만 진리를 찾아가고 아름  
다운 미래를 약속해 가는 길이기에 진정한 학자에게 있어서는 행복하고  
충실한 삶의 길이기도 할 것이다. 훌륭한 학자가 되려면 학문적 소질과  
수준, 끈질긴 탐구 정신을 갖춰야 할뿐 아니라 학자적인 인격과 성실성,  
넓은 흥미, 뛰어난 학술적 전략도 갖추어야 한다. 나는 김철 박사가 금후  
더욱 노력하여 훌륭한 학자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김병민  
2007년 8월  
연길에서

# 차 례

|                                          |     |
|------------------------------------------|-----|
| 제1장 緒論 .....                             | 1   |
| 제2장 朴齊家の 中國觀 .....                       | 7   |
| 2.1 朴齊家の 成長과 中國觀 .....                   | 7   |
| 2.2 朴齊家の 中國觀과 그 實質 .....                 | 19  |
| 제3장 朴齊家の 文學觀과 中國 文論의 關聯 .....            | 57  |
| 3.1 朴齊家の ‘味’學觀과 中國 詩學論 .....             | 57  |
| 3.2 ‘詩畫境相通’론과 中國 文人畫論 .....              | 88  |
| 3.3 性情의 自然스러운 표현과 眞詩 .....               | 123 |
| 제4장 朴齊家の 詩歌 創作과 中國 文學 .....              | 137 |
| 4.1 朴齊家の 詩文學과 屈原 .....                   | 137 |
| 4.2 朴齊家の 詩文學과 王士禎의 詩 .....               | 168 |
| 4.3 朴齊家の 詩歌 創作과 清代 性靈派 詩 .....           | 190 |
| 4.4 清代 考證學과 朴齊家 詩歌의 考證學的 特徵 .....        | 212 |
| 제5장 朴齊家の 中國 文學 批評 .....                  | 219 |
| 5.1 明清 市民 文學思潮과 清代 市民 藝術 思潮에 대한 批評 ..... | 220 |
| 5.2 清代 戲曲 文學과 詩歌 文學 發展에 대한 批評 .....      | 232 |



|                                |     |
|--------------------------------|-----|
| 제6장 朴齊家 文學의 中國 文壇에로의 傳播 .....  | 245 |
| 6.1 『韓客巾衍集』과 朴齊家의 詩 .....      | 246 |
| 6.2 清代 文壇에 대한 朴齊家 文學의 影響 ..... | 252 |
| 제7장 結論 .....                   | 279 |
| 참고 문헌 .....                    | 293 |
| 후기 .....                       | 299 |

## 제1장 緒 論

초정 박제가(楚亭 朴齊家, 1750—1805년)는 조선조 후기 북학파의 한 사람으로서, 후기 四家 시인 중에서도 가장 개성이 있고 재능이 있는 문인으로 평가받고 있다. 비록 당시 서얼 출신으로 태어나서 세상 대접을 제대로 받지 못했으나, 그의 비범한 학문 정신과 그 시대를 초월했던 개방적인 문화 의식은 오늘날에도 후세 사람들에게 좋은 귀감이 되고 있다.

그런 만큼 많은 학자들이 박제가에 대해 주목하고 그에 대한 연구를 끊임없이 진행하고 있다. 박제가에 대한 연구 논문은 그의 북학 사상으로부터 경학 사상, 문학관, 문화 의식, 및 詩學觀과 시가 창작의 특징에 이르기까지 언급되지 않은 것이 거의 없다. 박제가에 대한 연구는 1990년대 초반까지 그의 북학 사상과 문학관 중심이었으나, 그 이후에는 그의 시론과 시에 대한 연구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기 시작했으며, 그 성과도 괄목할 만하다. 현재 박제가와 관련된 각종 연구 논문은 백여 편을 상회한다. 여기서는 본논문의 취지에 맞게 문학과 관련된 기존의 연구 상황만을 검토해 보겠다. 우선 시론 내지 시 연구와 관련한 논문들을 살펴보면 성균관대학 吳壽京의 「초정 박제가 시 연구」(1982년), 鄭良婉의 『朝鮮朝後期 漢詩研究—특히 四家詩를 中心으로』(1983년)<sup>1)</sup>, 金武憲의 「朴齊家の 懷人詩 略評」(1987년)을 비롯하여 연세대 金景美의 박사 논

1) 鄭良婉 著, 『朝鮮朝後期 漢詩研究—특히 四家詩를 中心으로』, 성신여자대학교 출판부, 1983년 2월.

문 「朴齊家 詩의 研究」(1991년), 成均館大 大東文化研究院 安大會 책임 연구원의 「박제가 詩의 사물, 인간, 사회」<sup>2)</sup>, 이화여대 崔淑仁의 「조선 후기 文學에 나타난 繪畫性 研究」(1989년), 그리고 역시 성균관대 鄭日男의 「朴齊家の 詩論과 詩」(2001년) 등은 시론과 시 연구의 성과를 대표하는 논문들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박제가의 문화 의식 내지 미의식, 그리고 문학관 내지 시론에 대한 논문도 많은데, 한국 尹基洪의 「北學派와 후기 四家の 文學思想 研究」(1991년 『尹基洪全集1』), 宋載邵의 「朴齊家の 文學觀」(1995년)<sup>3)</sup>과 「한시 미학과 역사적 진실」(「楚亭 朴齊家の 미의식과 시론」 부분)<sup>4)</sup>, 전북대학교 이종주의 「북학파의 인식과 문화」 등의 논문 및 저서들이 있다.

그리고 본 논문과 역시 밀접한 관련이 있는 박제가와 중국 관련 연구 상황을 살펴보면, 조정 자신이 당시 청나라 문인들과의 교유가 많았던 관계로 이와 관련한 논문·저서들도 적지 않으며, 그 연구 성과도 또한 크다. 그러한 논문 및 저서 중에서 대표적인 것은 한국 건국대학교 陳寧寧의 박사 논문 「朝鮮朝 實學派文學과 清代文化와의 關聯性에 대한 研究」(1987년 12월)를 비롯해서 한국 이경수의 「漢詩四家の 清代詩 受容 研究」(1992년, 박사 학위논문), 일본학자 藤塚鄰의 「清代文化의 東傳 研究」(國書刊行會, 1957년)와 「추사 김정희의 또 다른 얼굴」(1994년)<sup>5)</sup>, 중국 연변대학 교수 金柄珉의 「朝鮮詩人朴齊家與清代文壇」(논문, 2003년)<sup>6)</sup>과 「朝鮮北學派文學與清代詩人王士禎」<sup>7)</sup> 등이 있다. 이 외 역시 金

- 2) 한국학연구소 편, 『18세기 조선 지식인의 문화 의식』, 한양대학교 출판부, 2001년 12월.
- 3) 宋載邵, 「朴齊家の 文學觀」, 한국한문학회 연구회 편, 『한국한문학연구』, 태학사, 1995년 4월.
- 4) 宋載邵, 「한시 미학과 역사적 진실」, 창작과 비평사, 2001년.
- 5) 등종린 저, 박희영 역, 『추사 김정희 또 다른 얼굴』, 아카데미하우스, 1994년 4월.
- 6) 金柄珉, 「朝鮮詩人朴齊家與清代文壇」, 『社會科學戰線·文藝學研究』, 2002년 제6기, 100쪽.
- 7) 『文學評論』, 2002년 第4期, 58쪽.

## 2 朴齊家の 시문학과 중국 문학 관련 연구

柄珉의 『朝鮮中世紀北學派文學研究』(1992년)도 박제가와 청나라 문학의 관련에 대해 고구한 가치가 큰 논문이라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정 박제가 시문학과 중국 문학과 관련 연구는 아직도 발굴하고 정리해야 할 과제들이 남아 있다. 지금까지 전체적으로 박제가 관련 연구 논문들을 살펴보면, 박제가와 중국 문학의 관련성에 대한 전문 연구는 전무한 실정이고 다만 박제가의 문학성을 살피는 데 있어 淸과의 관련성 혹은 그 영향 정도만을 언급하고 있는 게 사실이다. 陳寧寧의 논문은 초정과 청나라 문화 및 문학의 관련을 연구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다만 초정 시문학의 낭만주의 표현 특징을 지적하면서 중국의 이백과 비교했으며, 기운(紀昀), 이조원(李調元), 나빙(羅聘)에 한정하여 교유 관계만을 치중하여 논술했기 때문에 충분한 논의가 이루어지지 못한 한계를 갖고 있다. 이경수의 논문은 초정과 청나라 시인 및 시의 수용 관계를 포함해서 소위 四家 시인으로 지목되는 이덕무(李德懋), 유득공(柳得恭), 이서구(李書九)를 아울러 이들과 왕사정(王士禎)과의 관련, ‘性靈’과 시인들과 考證學 경향의 시인들과의 관련 등에 대해 폭넓게 다루고 있다. 자료가 충분하고 논증이 잘되어 있으나 역시 전면적이고 다각적인 시각에 의한 심층적인 분석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한 부분이 있어 아쉽다. 김병민의 논문 및 저서는 초정 박제가와 청나라 문학의 관련에 대해 폭넓고 심층적으로 다루었다는 점에 가치가 크다. 그렇지만 중국 문학과 관련을 보다 집중적으로 깊이 있게 정리하지 못한 부분들이 남아 있다. 이를테면 초정의 일부 시론 내지 일부 개념 등과 중국 문학(청나라 문학 포함)의 관련 문제들이다. 아울러 기존의 연구들은 연구 시각과 방법이 단일한 점도 있다.

한국의 실학 문학에 있어 박제가의 위치는 대단하며, 그를 논하지 않고는 중후기 조선 문학을 천착(穿鑿)할 수 없는 실정이다. 조선 실학문학사뿐만 아니라 한국 문학사에 있어 큰 획을 긋고 있는 박제가와 중국 문학의 연관성으로 연구 과제를 잡은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박제가는 평생 중국을 4차례나 다녀갔고 또한 많은 청나라 문

인들과 교유 관계를 맺었으며, 다각적인 문학 교류를 진행했기 때문이다. 그 과정에 중국 문인 및 문학(청나라 문학도 포함)은 박제가의 문학 내지 인간적인 내면에까지 지대한 영향을 끼쳤을 것이다. 그러므로 박제가를 논하면서 중국 문학과와의 관련을 전면 검토하지 않고 단순히 같은 유파들과의 관련이나 주변 인물들과의 영향 관계만을 논한다면 박제가란 인간과 그의 문학을 전반적으로 옳게 이해할 수 없다.

둘째, 기존의 연구들에서는 박제가의 문학을 단지 청나라 문학과와의 관련만으로 한정해서 논의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이는 그의 문학 진면목을 살피는 데 한계를 지닐 수밖에 없다. 마땅히 청나라의 전반은 물론 전 시기의 중국 문학을 두루 아울러 중국 고전 및 문학론들과의 관계 속에서 박제가의 문학을 조명하는 게 바람직할 것이다.

셋째, 당시 조선조 사람들은 존명양이(尊明攘夷) 사상이 골수에 박힌 까닭에 청에 대한 이해와 접근에 상당히 많은 시간을 필요로 했다. 이 중에서 박제가는 남다른 시각으로 그 누구보다 대담하게 중국 현실에 접근했고, 다원적인 논리로 그 시기 ‘尊周論’과 대일통론 즉, 중국 중심의 華夷(화이:중국과 오랑캐)론적 세계관<sup>8)</sup>에 도전장을 던지고 이용후생을 위한 북학을 주장하기에 이르렀으며, 이를 현실적으로 실천하기 위해 여러모로 고심을 했다. 그러는 과정에 주체 의식이 더욱 분명해지고 결국에는 중국 문인들과 대등한 위치에서 중조 양국 간의 문학 교류를 적극 추진하였던 바, 조선의 문학을 중국 문단에 전하고자 한 의지가 분명했었고, 또 그에 상응한 실질적인 노력을 했기 때문에 나중에 귀중한 결실을 맺었던 것이다. 실제 초정은 역대로 중조 문화 및 문학 교류에 있어 일방적이던 수용 및 유입의 정도를 타개하고 상호 대등한 위치에서 영향을 주고받았다고 평가받을 수 있을 만큼 실제적인 노력을 했던 것이다. 이러한 견지에서 박제가의 문학 교류 활동이 중조 문학 교류 및 발전에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를 밝혀내는 작업도 역시 상당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

8) 이종주, 『북학파의 인식과 문학』, 태학사, 2001년, 6쪽 참조.

넷째, 기존 연구들의 연구 시각과 연구 방법에서 전면적이고 다양하지 못한 점을 좀 더 정리·보완하여 보다 다양한 연구 시각과 방법을 확보하는 것도 자못 중요하다고 본다.

당시 박제가와 중국 문학과의 교류는 서로 다른 민족 간의 교류였던 만큼 중조 문화 교류사뿐만 아니라 당시 동아시아 문화사에 한 페이지로 남을 만한 의의를 갖기에 충분하다. 여하튼 청나라 문학을 포함해서 중국 문학은 박제가 자신은 물론 조선조 후기(18—19세기 초) 문학에 전반적으로 커다란 영향을 주었다. 그렇지만 청나라 문학의 수용자, 전파자로서의 박제가는 맹목적인 수용이나 모방이 아닌 자기만이 가질 수 있는 독특한 이해와 표현 방법으로 독창적 문학관을 정립하였다. 이는 조선조 후기 문학사에 길이 기념해야 할 전형이다.

본 논문의 연구 대상은 박제가의 중국 인식을 비롯해서 그의 문학관과 중국 문학론의 관련 내지 시의 특징, 중국 문인들과의 교류 관계 등을 포함하는바, 내용이 방대하고 자료가 풍부하기 때문에 시각의 다양화와 이에 따른 방법론의 다양화에 주의를 기울일 것이다. 특히 문학사적, 교류사적, 사상사적 등 여러 측면의 연구 시각을 유지하면서 여러 가지 방법론을 도입할 것이다. 연구 방법으로는 비교문학의 연구 방법을 기본으로 하면서 수용미학, 문예 심리학, 형상학 연구, 문화상대주의 연구 등 다양한 연구 방법을 종합 활용하여 박제가의 시문학과 중국 문학 간의 관련 양상의 진면목에 접근하고자 한다. 그리고 아울러 횡적인 연구와 종적인 연구를 적절히 결부하여 연구를 진행할 것이다.

제1장은 서론 부분으로서 기존 연구 상황, 연구 대상 및 연구 목적, 연구 의의와 연구 방법 등을 설명한다. 제2장에서는 독자적인 문화 심리를 기반으로 형성된 열린 문화 의식에 대한 전면 고찰을 통해 박제가의 중국관에 대해 전면 분석하고 그 중국관의 본질에 대해 새롭게 정리 해 본다. 제3장에서는 박제가의 문학관과 중국 문론 및 문학과의 관련에 대해 비교분석을 하고 박제가의 문학관 및 문학 이론의 특징과 그 창조적 수용 의의와 가치에 대해 논술할 것이다. 제4장에서는 박제가의 중국 문

학비평에 대한 양상을 살펴본다. 제5장에서는 박제가의 시 창작과 중국 문학과의 관련에 대해 비교 고찰, 분석할 것이다. 제6장에서는 초정 문학이 중국 문단으로의 전파와 그 의의에 대해 논술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결론 부분에서는 앞에서 논술한 내용들을 다시 종합 정리하면서 초정 박제가와 중국 고대문학의 관련, 그의 문학이 중조 문학 교류사에서 갖는 가치 및 그 현실적 의의를 제시할 것이다.

## 제2장 朴齊家の 中國觀

### 2.1 朴齊家の 成長과 中國觀

초정 박제가의 중국관 형성은 그의 사회적인 성장 환경, 교육적 환경 등과 긴밀히 관련되어 있다. 그가 생활했던 당시의 사회적 상황과 초정의 특수한 개인적 상황은 그의 정치적 이상과 학문적 이상뿐만 아니라 그의 사상적 실질에서 가장 중요하고 관건이 되는 중국관에까지 중요한 영향을 미쳤던 것이다. 이제 우리는 우선 그의 중국관 형성에 깊은 영향을 미쳤을 당시 사회의식과 이를 배경으로 한 그의 성장 과정에 대해 살펴해보도록 하겠다.

#### 2.1.1 18世紀 前後 朝鮮朝의 對淸意識

17세기에 들어와서 치욕적인 丙子胡亂(1636년)을 계기로 조선의 지식인들은 정신적으로 심각한 변화를 가져오게 된다. 오랑캐에게 굴복당한 정신적 상처와 함께 현실적으로 받아들이기 어려웠던 것은 中華로 섬겨오던 淸의 멸망이었다. 淸의 멸망으로 해서 초래된 전통적인 국제 질서의 붕괴는 조선의 지식인들에게 크나큰 충격을 주었다. 이러한 충격을 극복하기 위해서 그들은 치열한 사상투쟁을 진행하였는바 당대의 이념적 支柱였던 朱子學의 명분론에 입각하여 오랑캐에게 정복돼 버린 淸에 대해선 大明義理論을, 새로운 중원의 지배자인 청에 대해서는 反淸의 北伐大義理論을 견지하면서 조선 스스로에 대해서는 기존의 小中華의식을 더욱 강화하였고 아울러 스스로 중화 문화 내지 문명의 유일한 계승자,



保存者로 자임하면서 조선의 주체성을 확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때 이들 조선 지식인들이 가지게 되었던 명분론적 국제 질서관은 대체적으로 화이론에 입각하여 명나라·청나라·조선주체를 차등적으로 위치 지우는 것으로 정립되어 갔고, 이를 전제로 대명의리론과 북벌대의론, 문화자존 의식이 상호 표리를 이루면서 三位一體적 一貫性을 갖는 것으로 설정되어 있었다.<sup>9)</sup>

그러나 18세기 이래 조선조 사회의 전면적인 변화는 그 이전부터 조선 지식인들이 추구했던 주자학의 명분론에 입각한 사회 대내외적 질서의 정당성을 동요시켰을 뿐만 아니라 그러한 명분론을 제시했던 사대부 계층에 충격을 가한 셈이었다. 그 변화란 바로 노론계의 지식인들이 과거 정통적인 대외명분론에 대해 부단히 반성하고 회의를 제기하면서 점차 대명의리론과 문화자존 의식의 불이익을 이끌어 냈으며 결국엔 대명의리론—문화자존 의식—북벌대의론의 삼위일체적 일관성의 해체를 초래하게 한 그것을 가리킨다. 그 변화 해체의 과정을 대체적으로 살펴보면 알 수 있듯이, 처음에는 중원을 차지한 청에 대해 극도의 분개를 나타냄과 더불어 스스로 중화의 적통임을 주장하면서 조선의 문화자존 의식을 더욱 내세움으로써 문화적 자신감을 나타냈던 것이다. 이로 말미암아 극단적인 문화자존 의식이 고조되고 조선의 문화는 그 자체가 가장 우수한 것이며 조선의 물산도 조선의 경제생활에 충분한 것으로 인식하였던 것이다. 이는 조선 후기 주자학자들의 문화적 화이관의 전형적인 표현이었다.<sup>10)</sup> 이러한 인식은 결국 “우리의 생활이 우리 문물만으로도 충

9) 유봉학, 『18-19世紀 燕巖派 北學思想의 研究』(박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대학원, 1991년 12월, 48쪽 참조.

10) 震檀學會 編, 『湛軒書』, 一潮閣, 2001년, 58쪽 참조. 趙誠乙 교수는 「홍대용의 역사 인식」이란 글에서 “조선조 후기 주자학자들이 자아를 존중하는 근거가 우리의 문화가 아니라 중국의 유교 문화이며 그 가운데서도 주자학이었고 이 주자학으로 당시 해체하고 있던 중세사회(상하 관계에 입각한 체제)를 재건하고자 한 것이 문제”라고 지적하면서 이러한 “지나친 자존 의식은 외국 문물의 도입을 방해하는 요소로 작용하기도 하였다.”고 비판하였다.